

the other

해방이화 110주년 대동제에서의
고대생 집단난동보고

수선 : 여성주의운동에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지들

발신 : 해방이화 제28대 총학생회 이회기 편다'
여성위원회

일시 : 1996년 9월 5일

목차

P.1 민족고대생들의 집단난동의

사건규정

P.3 경과보고

P.8 교내 총학의 글

P.14 거간 협가과 향후계획

P.17 위음관한 통신글들

P.31 여느천개가 보내온 글

110주년 이화대동제 고대생 집단 난동 사건 경과보고

5월 대동제 일주일전

- ▶ 이화여성위원회 - 대동제 마지막날 댕거리한판 주제로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성희롱인가?"로 결정,
- ▶ 하이텔 고려대학교 동호회[석탑]에 사전 문제제기
- ▶ 이화 가건물 앞에 고대생의 집단난동에 관한 문제제기 대자보 부착.
- ▶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의 이대 여성위원회 방문. 입장 교환 후 95년도 자료제공.

5월 22일

- ▶ 고려대학교 학생복지위원장 방문. 이화대동제때 호포단을 보내겠다고 제안.
- ▶ 총학생회측은 호포단이 오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으나, 공식적인 모습으로 오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힘.

5월 25일

- ▶ 중앙일보에 이화대동제에 고려대학교 측에서 호포단을 보낸다는것이 기사화됨.
-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이화대동제 댕거리한판(토론회) 공식불참 선언.(그 이유로 고대총학생회는 성희롱 규정에 대한 유감 표명),
- ▶ 고대총학생회와 고대여학생위원회의 난동 자제 대자보 고대에 부착.(여학생위원회의 대자보에는 '지랄', '그런다고 우리가 안가냐' 식의 비난문구 낙서 발견)

5월 27일

- ▶ 이화여자대학교 110주년 대동제 시작. 27-28일날 응원가를 부르는 소규모의 고대생집단에게 총학생회 집행국 개별적으로 자제 요청, 해산시킴.

5월 29일

- ▶ 낮 12시2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고대생 집단난동-성희롱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박물관 앞에서 댕거리한판 진행 (고정토론자-서동진氏, 변영주氏, 여성위원장/사회자-총학생회 매체국장). 150여명의 이화인 참석.
- ▶ 하오 6시경: 이화광장에서 500여명의 고대생들의 집단난동 시작.
- ▶ 하오 7시경: 난동고대생들- 8시에 모이기로 자체결의하고 자진해산.
- ▶ 8시15분경: 다시 박물관 앞에서부터 "민족고대" 동이 뜨고 순식간에 다시 이화광장 재점거.
- ▶ 8시30분경: 운동장 입구 근처쪽에서 "운동장"이라는 소리가 외쳐지고 수백명의 고대생들이 한 목소리로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을 외친 후 운동장 집단 난입. 이 과정에서 환경공학과 4학년 차명진학우가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함.
- ▶ 9시경: 다시 이화광장을 점거한 수백명의 고대생들-여전히 엘레제 등의 노래를 외치며 고성방가, 집단 난동 유지.
- ▶ 10시 30분경까지: 2-3차례 운동장 재진입 시도. 몇차례 다시 응원가를 부르다가 쓰러

기 좁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자체 해산. 고대 학생처 과장, 처장이 급히 이화광장으로 와 몇몇 고대생을 잡아 학생증 확인, 돌려보냄.

5월 30일

- ▶ 새벽부터 각 PC통신난에 비난의 글 폭주.
- ▶ 총학생회/여성위원회 1차 비상회의

5월 31일

- ▶ 총학생회 긴급속보(차명진 학우 부상)자보 부착, 피해사례 수집.
- ▶ 총학생회-여성위원회 2차 비상회의: 이번 사태를 "민족고대로 표방되는 남성패권주의적 폭력문화가 여성문화로 상징되는 이화대동제라는 문화공간으로의 침탈"로 규정, 강력 대응 결정.

6월 1-2일

- ▶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 유포.

6월 3일

- ▶ 각종 일간지에 고대생 난동사건 보도.
- ▶ 1시부터 이화 씨네마떼끄에서 고대생 난동 비디오 상영.
- ▶ 대동제 집단난동 경과보고와 여성위원회 입장, 그리고 고대생들의 난동 사진이 실린 대자보전 시작.
- ▶ 4시20분경: 이화광장에서 '민족'생들의 집단난동 규탄대회 개최.
- ▶ 월요일화제때 난동 비디오 상영
- ▶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와 문과대학생회측에서 여성위원회에서 촬영한 비디오 받아감.

6월 4일

- ▶ 고대생 난동 비디오 생협에서 종일 상영.
-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측에서 비디오를 받아감.
- ▶ 고려대학교 '강통'에서 비디오 상영시작.(이후 고대 여성위원회와 문과대 중심으로 각 단대를 돌면서 비디오상영)

6월 5일

- ▶ 고려대학교 학생관 앞에서 비디오 상영, 사진공개 시작.
- ▶ 하오2시 이화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가진 후 4시경 고대 학생관앞 민주광장에서 항의집회 개최.
- ▶ 이화여성위원회, 고대여학생위원회, 고대총학생회, 이화총학생회 입장 공표.
- ▶ 민족고대생의 집단난동에 대한 이화여대의 요구사항

● 고려대학교 총장과 총학생회 명의로 5대 일간지(동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에 공개사과문게재

● 주동자 및 공범자 확인과 학칙상 처벌

● 이화여자대학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 고려대학교 자정대책 마련 계획 및 시행약속. 그리고 내년 재발시 처벌 계획과 시행약속

● 여대를 비하하고 물상화 시키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막걸리 찬가의 금지

6월 10일

- ▶ '범 이화인 학원 폭력 근절 추진위원회'에서 이화교수님을 중심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진행(총 578명서명)
- ▶ 고대 학생처 명의로 이대 학생처로 공문발송: 부상당한 학생에 대한 치료비 부담과 주동 학생 5-6명을 조사중이며 학칙에 따라 중징계할 방침임을 밝힘. 내년부터는 고대 학생처를 중심으로 교직원을 동원하여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임할 것

6월 13일

- ▶ 고대 총학생회명의로 이대 총학생회로 공문발송: 이번 사태는 고대생들의 전통에 대한 왜곡된 이해, 잘못된 남성우월주의, 편협한 엘리트의식에 기반하여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양교본부와 총학생회 4자 공동기자회견을 할것을 제안한다
- ▶ 난동에 참가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사과문이 작성되어 고대측에 게시됨.(50여명)
- ▶ 고대 총학생회의 사과문 나옴
- ▶ 고대 총학생회에서 [징계대책위원회] 꾸러짐: 합당한 징계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단순히 잘못된 사람 벌주기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힘

6월 14일

- ▶ 고대 총학생회와 이대 총학생회의 1차 회의 : 고대 총학생회 측은 이 사건이 성적 우월의식이 작용했다고 보지만 그것만이 아닌 성적 편견이라는 것의 기반에 있는 사상적 문제에 착목하여야 하며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라고 본다. 자주성은 사람의 본성이고 이번 사건은 이대의 자주성을 짓밟은 행위라고 규정하며 그 안에 성적 우월의식과 개인주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주성의 침해는 이화광장속에서 행해지는 웅원가와 여타의 사건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힘. 이대측은 이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명확한 사건이라고 볼때 일반적인 인간의 도리가 아닌 정확한 대상규정을 통한 사건규정을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논의가 깊게 되지는 못했고 양교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규정과 징계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하는 회의였다.

6월 19일

- ▶ 고대 총장명의로 이대 총장에게 공문발송 : 치료비를 고대측이 부담할 것이며 졸업할 때까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는 내용

6월 21일

- ▶ 고대 총학생회와 이대 총학생회의 2차회의 :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고대 총학생회는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데 동의하였고, 이대 총학생회에 학칙상 처벌 철회를 제안하였다.

6월 24일

-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측에서 이 사건에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

6월 25일

- ▶ 고대 총학생회는 주동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징계방침철회

를 위한 탄원서를 발표: 중징계 반대의 근거는 단순한 중징계만으로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가져올수 없다는 점과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려 해결하려는 것은 홍일식 총장님이 말하는 '바른 교육 큰사람 만들기' 운동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아니라는 점, 또한 고대학우들이 이 문제를 당사자들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측의 중징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6월 26일

▶YWCA가 주최하는 제2회 전국 대학생 여성포럼에서 연세대 사회극팀과 고대생의 집단난동과 남성과 여성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룬 사회극과 토론회진행.

6월 28일

▶고대총학생회와 이대총학생회의 3차 회의: 고대총학생회가 제안한 공동기자회견및 공동성명서부분과 학칙상 처벌 철회제안에 대한 이대측의 입장을 전달

▶공동기자회견제안과 학칙상 처벌 철회제안에 대한 이대의 입장

1. 공동기자회견 관련하여

언론기자의 입을 통해서 기사화가 되는 공동기자회견의 경우 또한번 이 문제를 고대와 이대만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가쉽거리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공동기자회견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대 총학생회는 공동성명서를 제안한다. 공동성명서라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방향에 동의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며, 고대측의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과 성실성을 보여줄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동성명서에 있어서 재정부담은 고대측이 전적으로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이대의 입장이다. 공동성명서의 주체는 양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위가 최대한 포함이 되어야 하며, 고대학교당국과 총학생회, 이대학교당국과 총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양교 총학생회의 명목이 들어가야 한다. 상황을 보가면서 공동성명서가 되지 않았을때 공동기자회견으로 대처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기자회견은 불가능하다

2. 학칙상 처벌 철회제안에 대하여.

명백히 이화대동계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이광에서 운동장까지)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학칙상의 처벌은 되어야 한다. 이화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학칙상처벌이라는 요구를 한 것이지 감정적인 중징계라는 의미로 학칙상처벌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고대총학생회는 몇사람이 희생양이 되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주동자로 지목된 학우들중 몇명은 '결정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운동장난입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동자로 볼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희생양'이라는 표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을 명확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은 이화광장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화광장에서의 고대생의 집단난동은 분명히 범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총학생회 측은 이화광장과 운동장을 분리해서 사고하고 있다. 이화광장난동과 운동장난입사건은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으며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현재 주동자로 지목된 학우들에 대해서 주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화광장과 운동장을 분리하는 사고는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보여진다.

매년 발생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고대측의 자성의 소리는 93년도에도 있었으며, 자율적인 문

제해결을 위해 이대가 쓸 수 있는 가능한 방도는 다 사용해보았다라는 사실에서 고대측의 단순한 자성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하다.

고대는 이 사건이 매년 있어왔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대전체책임과 함께 '주동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고대측이 주장하는 대로 학칙상의 처벌을 철회한다고 했을때 고대의 책임지점은 불명확하며 이 사건이 내년부터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법행위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응당한 댓가를 치루는 것은 마땅하며,
학칙상 처벌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이대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또 하나의 문화]의 만찬회에 참가. [고대생의 집단난동]에 대한 사건의 규정과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참가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7월 6일 [또하나의 문화] 월례논단 시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의. (연세대 조혜정교수님과 이대 조형교수님, 김은실 교수님등 30여명이 참가)

이 자리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이 사건을 '성폭력이다'라고 정의내림.

▶고대 법대 징계위원회에서 집단난동에 참가했던 법대 95학번에 대한 유기정학확정

7월 1일

▶고대총학생회측에서 동의없이 학칙상징계대상자 7명중 5명(수학과 4명, 법학과1명)과 함께 찾아옴. 고대총학생회장이 징계대상자를 만나줄 것을 요청함. 징계대상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학칙상의 처벌이 진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혔으나, 고대측에서 징계대상자들도 이대측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징계가 되더라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수있을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하여 징계대상자들과 만나기로 결정하고 2시간반가량 대화를 가짐.

▶고대총학생회는 2만 학우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2만학우 공동 징계연서를 받기 시작.

7월 2일

▶고대 이과대 징계위원회에서 집단난동에 참가한 수학과 96학번 5명에 대한 처벌논의

7월 3일

▶고대 총학생회는 이대측이 학칙상처벌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공동성명서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혀옴. 이는 '고대와 이대 총학생회가 학생회로서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라는 것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이대 총학생회와 이 문제의 해결을 함께 가져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근거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문제해결에서 학칙상 징계가 포함되어있다면 공동성명의 내용적 부분을 전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대는 '학칙상 징계와 공동성명은 문제해결에 있어 하나의 맥락을 가진다. 즉, 이 사건이 엄연한 범죄이고, 이것을 직접적 처벌과 대중적인 인식확산을 함께 가져갈 때에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대측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주장에 대한 재고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글

◎ 중징계 방침 철회를 위한 탄원서 ◎

얼마전 이대 대동제에서 동료 고대 학우들의 난동으로 인해 행사 진행이 방해받고 심지어는 부상을 입은 학우까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저희 학생들은 모두다 자신의 일처럼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고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의 잘못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기에 그 학우들은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고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학칙상 중징계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을 희생양 삼아 문제를 덮어두려는 것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명문인 민족고대에서 굳이 이 학우들을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 측면에서도 당사자들의 고대에 대한 반발, 거부 심리를 유발할 것입니다. 하여 저희들은 당사자들에 대한 학칙상의 중징계가 철회되고 징계가 사태의 재

발을 근절하면서도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모든 고대인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몇 사람에 대한 중징계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재발 방지책을 내오는데 함께 힘을 썼으면 합니다.

◎ 총학생회는 당사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반대합니다. ◎

이대 대동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현재 학교에서는 중징계 방침이 논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지금 각 단과대 별로 교수님들께서 징계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징계 논의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총학생회는 아무런 해결도 가져올 수 없는 학칙상의 1년 유기 정학과 같은 중징계를 반대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순한 중징계만으로는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행위이지만 악의를 갖고 그에 따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며, 이와 같은 커다란 결과가 나타날 것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초래한 측면이 강합니다.

둘째, 특히나 이 학우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밤 8시 이후로 대운동장에는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용원을 하고 있는 도중 사진과 비디오에 찍힌 사실만으로 피해 발생과 연결시키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며 이 학우들만을 희생양 삼아 사태를 덮어두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사자들의 반성보다는 오히려 반발과 학교에 대한 불신만을 살 것입니다.

셋째, 홍일식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교육 큰사람 만들기'와도 맞지 않습니다. 홍일식 총장님께서 취임 직후부터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바로 잡기 위해 '바른 교육 큰사람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서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지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려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특히나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고 품어안으려고 하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대 학우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2만 고대 학우들은 이 문제를 당사자들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모두가 반성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당사자들 몇몇을 중징계하는 것은 2만의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대 대동제에서의 행위는 진정 잘못입니다. 그것은 이대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으나, 그러한 사태 발생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들이 그런 행동을 하였기에, '고대'라는 이름을 걸고 일어난 일이지 2만 학우 모두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현재는 당사자들에

대한 중징계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거의 90%의 고대 학우들이 학칙상의 중징계가 되어서는 안되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면서도 사회봉사활동, 여성운동단체에서의 봉사활동 등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2만 고대 학우들과 20만 선배 교우들, 그리고 고대를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합니다.

◎ 이대 대동제 난동 설문 문안 ◎

1. 사태의 본질적 원인

민족고대 총학생회는 이대 총학생회에서 요구한 '5대 일간지에 공개사과'에 대해 이대 측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는 고대가 이대에 사과하는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문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에 맞는 향후 대책을 논의, 수립하고 공동의 노력을 펼칠 때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사태의 본질을 짚어보는 것은 이후 재발 방지책을 찾는 데 전제가 됩니다.

1.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스티커를 붙여 주십시오.

- ① 고대의 단결의 전통에 대한 왜곡된 이해
- ② '고대생'이면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는 근거없는 우월의식
- ③ 고대 안에 존재해 온 남성중심의 문화
- ④ 대동제 전부터 고대생의 의식을 자극한 '성폭력' 발언 등의 이대의 과장된 대응
- ⑤ 기타

2. '성폭력'에 대해

2-1. 이대 대동제에서의 고대생들의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란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찬성()

반대()

(참고로, 성폭력이란 강간, 폭행 뿐만 아니라 물리적, 신체적 접촉과 언어사용 등으로 한 성이 다른 성을 억압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2-2. 총학생회에서는 어느 정도 고대생들의 잘못된 성의식이 이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대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2-3. 사발식과 함께 오랫동안 고대인의 사랑을 받아 온 '막걸리 찬가'가 이대 대동제 때 고대생들의 난동 시 불려지는 점과 가사 중 선창 부분, '마셔도 고대답게', 그리고 2절로 통하는 가사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3. 주동학생들의 징계에 대하여

3-1. 정학 등의 학사 징계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3-2. 징계를 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방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유기정학,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 여성 운동 단체에서 1달 정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하는 것, 등등.

4.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태의 재발방지를 마련하기 위해 민족고대의 모습을 다시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4-1. 민족고대 단결전통의 올바른 모습은?

4-2. 사학의 명문이라는 민족고대생의 시대 지성인으로서의 참다운 상은?

4-3. 여성과 남성의 올바른 관계는?

5.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모든 민족고대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

◎ 2만 학우에게 드리는 호소문 ◎

이대 대동제로 한동안 학교가 술렁거렸습니다.

이번 이대 대동제 당시, 별일 없을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대자보도 쓰고, 직접적으로 막기위해 호포단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백명의 학우들은 이 대자보를 읽었는지 말았는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호포단형의 당시 상황글을 읽어보면 선배고 뭐고 없는 안하무인의 고대생이었습니다. 호포단이 막는다는 것도 그들에게겐 술이 취했는지 어졌는지 그저 무시의 대상이었으며, 결국 이로 인해 이대 학우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야 고대의 이름을 자랑차게 떨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여학우는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철심을 꽂고 있었는데, 그 팔이 재부상당하여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학우들은 웬만큼 분노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폭력이라 규정한 것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순간에 고대생은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가 계신 선배님들은 연일 총학생회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못들고 다니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고대의 이름은 엄청난 단결력을 과시합니다. 그분들은 고대라는 이름으로 뽕뽕 뭉친 힘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학연이 묘하게 얹히고 설켜있는 사회에서 고대 출신의 선배님들은 한동안 움츠려 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학교당국과 총학생회는 사회여론의 여세만큼이나 단호하게 이리저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아직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5대 일간지 공개사과와 학칙상 징계문제입니다.

일간지 공개사과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이 많이 듭니다.

조금의 주눅들이나 줄렬함이 없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겠습니다. 더욱이 고대생이 그 위에서 국민들에게나 이화여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칙상 징계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학교는 학칙상 중징계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추진중입니다. 이는 이화여대측의 강경한 요구에 영향받은 바가 큼니다. 이화여대가 학칙상 징계를 안하면 성희롱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총학생회 징계대책위가 학칙상 징계를 반대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는 사태의 본질을 짚으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방향이 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 거의 90%이상의 고대학우들이 학칙상의 징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사회봉사 활동, 여성운동단체에의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 뒤 자기 활동보고서, 과정에서 자기가 느낀점 등을 써서 학우들에게 공개하게 하는 방식의 처벌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학칙상의 징계는 가시적인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앞으로 사회진출하는 데서부터, 평생을 살아가는데 학적부상의 오점하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학칙상의 징계를 막을 수 있을까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고민은 저 스스로 이일의 전말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학우들을 철통같이 믿으며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2만학우 공동징계 연서운동'이었습니다.

학우여러분, 지난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 과정에서의 제 고민에 귀기울여 주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고대생의 자성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언론의 얘기에 고대생의 전반적인 생각이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이건 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규정에 사회언론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고대생에게서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고대생의 자성의 목소리가 클 때 저는 강의실에 들어가 학우들에게 '그렇게까지 가지말라 그랬는데 왜 가서 이 소란을 불러 왔느냐.'고 질책하기 바빴습니다. 지금 와서 저는 너무도 크게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을 우리 학우들이 특히 새내기들이 가서 저질렀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내가, 학우들을 대표하는 학생회가 먼저 그 사실자체를 가슴 아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는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총학생회 설문지에는 학생들을 징계하기전에 학교당국과 총학생회부터 학우들앞에 사과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가슴에 너무나도 정당한 비수가 되어 꽂혀 왔습니다.

제 가슴을 더욱 더 아프게 한 것은 그 옆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후배 하나가 선배들이 시켜서 멋모르고 간 것이니 선배들이 책임지라고하고 선배는 후배에게 선배를 잘 못만난 너 자신의 운명을 한탄해라, 잘못된 것인줄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인 너 자신의 무지함을 탓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옆엔, '오호통제라, 민족고대가 언제부터 선배가 후배를 탓하기만 하고 후배가 선배를 욕했는가. 선배와 후배가 의리로 뽕뽕뽕쳐 하나가 되었던 단결된 고대의 모습은 어디갔는가. 이 사실이 나를 안타깝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고개를 들수가 없었습니다. 학우들의 마음이 반목과 불신으로 이렇게 갈갈이 나뉘어지는데 어찌 내가 총학생회장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족고대 이만 학우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서야 어찌 내가 총학생회장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에 저는, 주동자라 칭해진 7명의 친구가 학칙상의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부터 먼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부터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진정으로 총학생회장으로서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이 학우들은 내 동생처럼 생각하여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저부터 나서면서 저와 함께 하자고 [2만학우 공동정계 연서운동]을 감히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하여 고대인 모두가 진실로 반성하며 공동책임의식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밀받침되지 않고서야 몇 명의 학칙상 징계는 그 어떤 의의도 없습니다.

학우여러분, 민족고대의 자랑스런 전통인 집단주의 단결의 본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고대'의 이름으로 행해진 잘못이라면 비록 내가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모두가 나서서 짐을 나누려 하는 과정에서 너나 가릴 것 없이 함께 반성합니다. 그 마음의 표시로 '우리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니 우리 모두를 징계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연서를 발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표시하면서, 이화여대와 고대 학교를 감동시킵시다.

대학사회에서 교육으로 계도함이 아니라 제자의 어린 치기로 인한 잘못을 학칙상 징계하고 마는것은 참다운 스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 학교로 하여금 스승으로서 가져야 할 옹당한 책임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돌아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사태 전반과 관련하여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겠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우여러분, 사람사랑 학생회가 만들고 싶어하는 고대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가치를 그 어느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나의 이익보다 우리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모여 사람과 사람간에, 모임과 모임간에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고대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각박하게 만드는, 나를 용렬하게 만들고 인간보다 물질을 중시하게 만드는, 억압과 불평등을 만드는 모든 것에 맞서 분노하고 싸워나가는 고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학우여러분들의 지향과도 일치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되었건 힘이 센자가 약한 여성들의 행사를 방해하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이들을 무시하며 제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못할 일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를 가로막는 제도와 구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패권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이는 자신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는 눈물겹게 매마른 세상입니다.

성폭력이나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해도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이 마음만은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학우여러분, 정녕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공동정계 연서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학우여러분, 고대답게 대처합니다. 잘못을 깨끗이 인정한 후에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이후에 더욱 더 잘하는 시원시원한 모습이 고대다운 모습 아닙니까?

학우여러분, 우리 하나로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이후 이 문제의 '중장기적인 해결책이나, 해결을 넘어 새로운 정립까지 항상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여러 가지의 대안과 사업계획을 내놓겠습니다. 학우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난관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만 학우 공동 징계 연서 ◎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모여 사람과 사람 간에, 모임과 모임간에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각박하게 만드는, 나를 용렬하게 만들고 인간보다 물질을 중시 여기게 하는, 억압과 불평등을 만드는 모든 것에 맞서 분노하고 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힘센자가 약한 여성들의 행사를 방해하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이들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용납 못할 일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집단이기적이고 패권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이는 자신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는 눈물겹게 메마른 세상입니다. 성폭력이나 아니나를 넘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이 마음만은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하여 고대인 모두가 진실로 반성하며 공동책임을 가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밀받침되지 않고서야 몇 명의 학칙상 징계는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고대'의 이름으로 행해진 잘못이라면, 비록 내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가 나서서 짐을 나누려 하면서 너나 가릴 것 없이 함께 반성합니다. 그 마음의 표시로 '우리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니 우리 모두를 징계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연서를 받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표시합니다.

이화여대 학우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이 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2만 학우 공동 징계 연서 운동에 동참합니다. 이는 이번 사태 발생과 재발 방지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결의를 모으는 것입니다.

기간평가와 향후계획

1. 기간평가

(1) 왜 이화는 이 문제를 제기하였나?

12년간이나 계속된 고대생들의 집단적 폭력난동. 이것이 단순한 "깡판"이 아니라, 물리적 힘의 약자인 여성에게 강제로 가해지는 "성폭력"임을 규정하고 공론화시킨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왜 12년간이나 지나서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가?"라는 물음보다는 "왜 아직도 이 '폭력'은 계속되는가?, 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는 고대생의 집단폭력이 계속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한다. 신체적인 물리력으로 얼마든지 여성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화의 공간을 강제 침탈해 온 것은 명백한 성폭력이며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화여대로 대표되는 여성들이 고대로 대표되는 남성에게 무력하게 제압되지 않도록 상호간에 사건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위에 대한 엄격한 선언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명백한 "성폭력"이 "재미"와 "전통"이라는 핑계를 뒤집어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악습은 중단될 것이다.

이것이 이화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이다. 물론 지난 십여년동안 문제제기는 그치지 않았지만, 정식적인 규정과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았던 것에는 피해자인 이화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기에 올해 더욱 적극적인 해결을 향한 실천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이는 남성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위협행위에 대한 여성집단의 자위권 발동이자, 소위 진보의 공간이라는 대학에서도 버젓이 자행되는 여성 억압에 대한 사회적인 고발인 것이다.

(2) 고대의 입장에 대한 평가

이화에서 낸 요구안에 대해 고대, 이대 양 총학생회에서는 몇 차례 회의를 가졌다. 고대 총학생회 측은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본다는 사건규정에 동의하고, 고대의 사과문이 포함된 공동성명서를 일간지에 내기로 이대측과 합의를 본 바 있다. 그러나, 고대측은 주동자의 학칙상 처벌에 있어서는 철회할 것을 이대측에 요구하였다. 심지어 7월2일 고대 학교 측의 학칙상 처벌의 방침이 거의 확실히 되자 고대 총학생회 측은 이화에서 고대 총학생회가 제기한 학칙처벌 철회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동성명서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 이유는 제도라는 것을 통한 해결은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당사자들의 고대에 대한 반발, 거부심리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만 고대학우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사회봉사활동등의 처벌로 대체할 것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화 총학생회는 앞서도 밝혔듯이 처벌은 고대 집단폭력 행위에 관한 엄격하고도 공식적인 평가이다. 이는 고대가 이야기하는 몇 사람 벌주기 차원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댓가이고, 이후 근절과 자정작업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선언의 절차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 문제는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을 바꾸어 내는 자족적인 활동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보다는 직접적인 피해자를 낳는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고대측의 학칙처벌 철회 요구는 벌써 나왔어야 할 공개사과문의 조건이 될 수 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본다. 사실 몇 사람이 학칙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고대 총학생회측의 입장을 보면서 사건에 대해 잘못 짚고 있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오류가 보

이기에 더욱 원칙을 강조하는 바이다.

고대 총학생회의 오류는,

① 학칙처벌이 사태해결을 하지 못하고, 당사자들의 거부심리를 유발한다. 반성하고 있으니 계도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처벌은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 이는 마치 "잘못은 했지만 처벌은 말아달라."는 이야기와 같다.. 명백한 범법행위에 옹당한 처벌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반발이 있을지도 모른다니.. 그렇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 여지껏 집단난동이 계속되어온 주요한 이유는 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선언을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볼 때 이제 이것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평가해내어야 마땅하고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본다. 고대인으로서 친구의 처벌을 막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감싸서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고대의 감정적인 대응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이대측을 마치 냉혈동물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게 화살이 돌려지고 인간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속에서 정확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유야무야 되는 시나리오라는 대부분의 성문제의 시나리오라고 한다.) 처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철회하라는 요구는 올바른 소급이 아니라고 본다.

② 주동자의 학칙상처벌에 대하여...

: 주동자 몇 사람을 봉사시킨다고 될 것은 아니다. 물론 반성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고대 학교의 처벌방침 근거 중 고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이 크다는 것을 보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그러나 처벌을 대체하며 개개인의 계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반적인 집단의 문화를 바꾸어 낼 수 없기 때문이고 사건의 근절에 대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의 전반적인 자정작업은 처벌과 함께 가야 한다. 이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해내고 문제의 근원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고 바꾸어 낼 수 있는 건설적인 자정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몇몇의 주동자만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한다.

③ 고대총학생회에서 벌이고 있는 공동징계연서등의 학칙처벌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 고대 총학생회는 당사자에 대한 중징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공동징계연서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대측에 학칙처벌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동성명서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제껏 양 총학생회의 회의에서 공동성명서와 학칙처벌은 별개의 항으로 논의되어 왔고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대의 입장은 사과와 자정작업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해야할 자신의 입장을 방기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고대의 입장은 양교의 건설적인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

고대는 주동자의 학칙처벌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망각하고 있다. 물론 몇사람의 처벌이 문제해결의 전부는 아니다. 고대문화 전체차원의 자정작업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칙처벌을 철회하라고 소급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는 이제껏 이 집단난동이 범죄행위로 평가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학칙상의 처벌은 되어야만 한다. 오히려 고대 전체가 문제를 받아안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대는 처벌 반대를 이야기하며 공동징계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고대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구체안도 밝히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이미 합의한 공동성명서를 조건부로 걸고 있는 것이 그러한 단적인 예이다.

고대 총학생회는 회의에서 고대 내의 여론이 아직은 매우 다양하고 문제를 단일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건의 명확한 규정을 의미하는 학칙상 징계와 함께 실질적이

고 강제력을 가지는 인식변화활동을 가져가야하지 않을까...

2. 앞으로의 일정

(1) 이화 총학생회는 명확한 사건규정과 제발방지를 위한 해결과정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만오천의 여성이 모인 집단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방치가 된다면 어디에서 여성의 문제가 해결 되리라고 보는가. 그 과정이 지난할지라도 고대의 사과문이 포함된 공동성명서, 공정하고 응당한 처벌과 자정작업, 철저한 피해보상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속에서 이 사안을 해결하고 이것을 계기로 크게는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2)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전반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다.

이화의 문제로 나타난 여성의 문제를 이화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한다는 의지로 범이화인 1000원 모금운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모금은 자료집 발행비와 이후 이화인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표명하는 데에 쓸 예정이다.

(3) 여성 사회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해결을 모색하는 단체 나름의 실천을 펼치고 있다.

이미 YWCA에서는 캠프에서 사회극과 토론을 진행하였고, 7월 6일(토) 5시에는 "또 하나의 문화"에서 이 문제로 월레논단을 진행하며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제 고대생의 집단 난동은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난동을 넘어서 이 사회에 만연하는 남성우월주의에 대해 여성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공식적으로 범죄행위라는 규정을 하고 처벌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적인 사안이 된 것이다.

이화인들은 이 사안에 관하여 많은 생각들을 나누어 왔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왔다. 이제 십여년간 묵은 문제를 뒤늦게라도 정확히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화인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기한만큼 끝까지 고민하고 해결에 관한 공동의 책임을 지는 다부진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사안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그 중에는 아직 이 문제에 관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의견도 많았다. 애초에 우리가 풀려고 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잊지않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아닐까?

읽은 만한 통신글들...

성폭력..우리도 당하고 있다

05/30 17:20 25 line

글을 주욱 보니까 고대 학생들이 쟁판(이 말이 싫긴하지만..)을 친 것을 조목조목 꼬집는 글보다 마치 석탑 사람들의 혈압을 올려놓기 위해 쓰는 글들이 많아서 저 또한 더더욱 짝이 듭니다 왜케 술이 고프죠..

하여튼..

제가 쓰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많은 고대 학생들이 이대에 가서 응원전을 하고 기차놀이를 하고 그랬죠..

누가 그게 잘한 짓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게시판에서는.. 근데 이대 학생분들이 여기다가 고대 남자는 다 그런 사람들인양 싸잡아서 매도 하는 것도 저는 성폭력 성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은 여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이대광장에 계셨던 고대 여학우들께..

05/31 23:07 86 line .

고대 여학우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다른 여성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다수의 남성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능력으로 고대에 들어왔고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다른 여성들의 도움없이도 자신의 높은 사회적 위치를 확고히하고 못 남성들과 경쟁하여 이길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른 나머지 여성들과는 무언가 다르다고 자부하십니까? 남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응원가를 부른다고 타대학의 여학우들을 보며 '나는 재네들 하고 달라!'라고 하며 우월감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사회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여성들과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상적이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 힘들습니다. 아니,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인간을 이분화 하여 수천년동안 키워왔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받은 사회화의 내용은 너무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은 아마도 강의와 책을 통해서 알고 계실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함께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철거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철거반과 정부의 횡포에 대항하며,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우리들이 동지의 죽음들을 보고 최루탄을 마시며 데모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같은 여성이 다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대동제의 '大同'의 정점인 영산 줄다리기 에 남성들과 똑같은 횡포를 저지르면서 희열과 쾌감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도 발길질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졸한 남성들과 같이 여성들이 단합된 모습을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은, 다른 여성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다른 남성들처럼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러분들의 위치로 올라올까봐 미리 경계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민중의 정당한 요구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발길질을 해대는 현정부의 가해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같은 지성인으로서, 같은 고대생으로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놈.년들을 보았다.

05/30 11:49 113 line

그들은 몰일듯 쏟아져 들어왔다. 한참 폐막제가 무르익는 운동장으로. 그들은 구역구역 줄을 지어 뛰어왔고, 그건 마치 공포 영화에서 바퀴벌레나 쥐가 구역구역 들어오는 걸 볼때의 느낌이였다. 혐오감, 공포.

그리고 그들은 엘리제를 불렀다. 나는 부들부들 떨었다. 가서 한 농 한 농 혹은 한 년 한 년 붙잡고 귀싸대기를 갈기고 싶었지만, 아..그들은 너무 많았다. 그 무력감, 울컥 치미는 것을 참으려니 몸이 떨었다. 난 욕을 잘 안하려 하는데 개**란 말밖에 안나왔다. 총학에서 조명을 끄고 우리가 노래도 부르니, 조금 시들해졌다. 그러자 그들은 기차를 만들었다. 나는 이광쪽 스탠드에 앉아 있어서 죽 늘어선 농들과 그들의 그림자를 같이 볼 수 있었다. 아침 이슬 노래가 깔리는 가운데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과 시꺼먼 그림자는 모든 걸 설명해주는 듯 했다. 그들의 젊음 몸과 그림자는, 절대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불의에 저항하는 숭고한 젊음이라는 말은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광주를 짓밟던 군인들의 젊음이었다. 임산부의 배를 가르던 농들의 모습이었다. 불합리한 기성세대보다도 못한 그들은 이성을 상실한 동물들이었다. 나는 아침 이슬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들어 본 적이 없었다. 투쟁가라면, 늘 씩씩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늘어지는 노래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 이슬을 부르는 우리는 투쟁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애써 준비한대동제를 망치는 농들에게, 한참 무르익는 분위기를 즐기는 우리를 해방하는 농들에게, 이성을 상실한 인간 쓰레기들로부터 우리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단지 우리가 여성이란 이유로 꺼리낌없이 행동하는 농들에게서 여성으로서 우리를 당당히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집단적 성희롱이란 말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글썄, 그 장면을 봤다면, 절대 아니란 소리를 못할 것이다. 성희롱이란 직접적으로 몸을 건드리는 것만은 아니다. 성적인 이유로 농락한다면, 그것이 성희롱일거다. 고대생들이 와서 그뻐 짓을 하는 건 단지 여자라서, 남자들보다 힘이 약해서이다. 어렸을 때, 남자 애들은 고무줄을 꿸었다. 하지만, 언제 그들이 다른 남자애들 축구하고 노는데 공 뺏아가는 것 본 적 있는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치사한 꼴이다. 축자는, 고무줄 꿸기는 장난일 뿐이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래, 그건 장난이라고 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남의 학교 행사 방해는 장난이 아니다. 전 이화인이 폐막제에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전 이화인을 모욕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들에게 개념을 심어줄수 있을까.

나는 여성이다.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다. 생리적으로 여성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성이다. 하지만, 쟁판농에 데 끼어있던 년들은 여자가 아니다. 몸은 여자일지 몰라도, 그들은 그뿐이다. 그들은 정체성을 잃고, 남성 문화에 휩쓸려 있다. 자신이 남자라 착각하고, 우리 사회 남성의 파워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초저녁부터 이광에서 밤이되기만 기다리고 있던 주동자를 봤다. 빨간 모자에 회색 체크무늬 남방을 허리에 두른 농. 장갑과 호루라기까지 준비해 오는 치밀한 농이다. 영웅이 되고 싶었을까? 준비성을 보면 96은 아닐거다. 그렇다면,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할 것 아닌가. 워집 자식인지 어쩌다 인간도 못되먹었는지. 그 **, 집단의 힘을 빌어 까불었지만, 혼자 데려다 놓고 뭐라 하면 꼼짝도 못할 거다. 그래, 누구 말처럼, 정말 그렇게 당당하다면, 쟁판 농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면, 왜 토론회에 와서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는 것인가. 집단적 성희롱이라고 규정되는 것이 싫어서라면, 와서 왜 그렇게 부르짖어안되는 지 따지더라도 했어야 하지 않는가. 육칠십년대 쌍쌍파티때문이라고? 지랄하지 마라. 난 사실 그 이유도 믿을 수가 없다.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 쌍쌍파티엔 고대생은 안왔을까? 생각이 제대로 박했다면, 남의 학교와서 쟁판농지 말고, 지네 애들이나 단속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쟁판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어떻게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집에 일찍 와서 숙제하려 했는데, 나오려는 순간 고대 농들이 밀려 들어오는 걸 보고 열받아서 집에 못갔다. 덕분에 숙제도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올해는 사람은 별로 안다친 것 같아 다행이다.

글을 올려놓고 나서 봤는데, 팔 부러졌다고? 그냥 웃고 싶다. 진짜.

용서받지 못할 자들...

05/31 09:44 56 line

고대 96 새내기입니다...

정말 기대했었습니다...이대 축제...95선배와 함께 결심했었습니다...

"축제에 놀러온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자. 볼 거리를 제공해주자.

우리는 쟁판 농으려 가는게, 축제 방해하러 가는게 아니다.

다 같이 어울려 재미있게 놀려는 것이다.

절대로 이대생들 손대지 말고, 때리면 맞아줘라..."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답시고 닭싸움,말뚝박기 등을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시쯤에 이화광장에서 응원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대 축제에도 가봤지만...정말 엄청난 수의 고대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처음엔...
 그리고 8시 반쯤...운동장을 외치며 이화광장에 모였던 고대생들이 우루룩
 운동장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그때까지도 그저 그런 모습들이 멋있고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짹짹 놀랐습니다...
 운동장 안의 모습은 아수라장이었고...그런 것은 우리가 축제에 오기전에 품었던
 기대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진짜 부끄러웠습니다...
 멍하니 서있기만 했습니다...
 주위에 서있던 이대생이 제 동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차마 여자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갖은 욕설을 다 하더군요...
 그래도 우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술을 마시며...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들어와서야 그때 한 이대생이 다쳤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백번 사죄해도 충분치 못하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한 고대 수학인 새내기...

고대생만 있던것이 아니었다. 05/31 12:30 43 line

천리안 연세동에 오름 글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욕먹을 자세를 단단히 하고 올린 것같네요.
 이 글을 보면서 고대와 이대의 문제도 아니고
 고대나 연대나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차명진 학우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구요.
 아울러 총학의 강경대응을 바랍니다.

번호:3584/3592 등록자:***** 등록일시:96/05/29 23:22 길이:48줄
 제 목 : 이대 축제서 고대의 쟁판..크크
 월을도 이대 축제 갔었구...
 방송제 봤쥬비.....
 오늘 고대 쟁판보러....
 크크 사실 나두 고대생인척 같이 쟁판났다...
 하여간 고대 친구들이랑 만나서 열썰미 쟁판났다...
 왕 쟁있었음....
 근데 왜 지킴이들이 안말리는 건쥬...
 작년엔 말려서 열라 쟁있었다던데....
 하여간 아이 러브 연세 빼지달고 난 고대 응원가 불렀다..크크크
 먼지 다뒤집어 쓰구 몰겠 장난 아니었쥬만....
 오랜만에 쟁있게 놀았네..크크
 근데 왜 연세인들은 안보이는지....

프그말게라도 아카라카 소리가 들렸으면 당장가서 할라 그랬더니만...
하여간 엘리제만 실컷 볼르다 왔네...크크크
고대 쟁판 정말 쫌있더군....

집단적 성희롱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 06/01 01:34 103 line

일부 고대생들의 쟁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글을 올리겠다.

게시판을 이에 대한 논쟁으로 얼룩지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고대동과 이대동에 써 있는 이에 대한 거의 모든 글을 밤을 새면서 읽어보았다. 나는 일부 고대생들이 놓는 쟁판을 싫어한다..

특히 술 한 잔 먹었다고 또 고대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다른 학교 축제에 가서 행사를 방해하는 그런 인간들을 싫어한다. 이대 쪽에서는 그걸 집단적 성희롱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난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내가 보기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글에서 읽었는데..거기서의 성희롱이란..진짜 성폭행같은 것이 아닌.. 강한 남자가 약한 여자한테 하는 행위란다.. 그렇다면... 강한 남자가 약한 남자를 쥐어패는 것도 성희롱인가? 남자와 남자끼리의 성관계도 분명 존재하니까 말이다.

일부 고대생이 이대에 가서 쟁판을 놓으면서...이대생들은 여자니까 또 여자애들을 그렇게 놀리면 재미 있으니까 소위 쟁판이라는 것을 놓는 걸까? 고대생들이 그 정도를 모르는 인간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거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고대생들은 그냥 참여할 뿐이다..자기 학교 응원가가 나오니까..또 술이 한 잔 들어갔고...재미도 어느 정도 있겠지...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젊은 열기는 하지 말아야한다는 이성이 제어하긴 너무도 끌어오르니까...(물론..그런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행위를 집단적 성희롱이라 불러야할까? 난 페미니스트들이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가지고..

그들의 용어로 짜맞추는 걸 싫어한다. 어떻게 주의를 좀 끌어보려고...꼭 그렇게 해야할까...이번 집단적 성희롱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 역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대생에게 "너희는 집단적 성희롱을 자행해왔다.그러니 이대축제에 와서 이에 대해 토론해보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거기서의 성희롱이라는 의미를 내가 잘못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해한 의미로서 이해할 것이다. 정말 고대생과 대화를 하고 싶었다면.. "매년 이대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고대생들의 쟁판에 대해 토론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의하고...토론 과정에서 집단적 성희롱임을 주장해야한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토론을 통해 증명해보이면 되고..솔직히 일부 고대생들이 이대에서 놓는 쟁판에 대해서는 글을 올리고 싶지 않았다..

일부 고대생들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니까.. 하지만..그 사건을 너무 이상한 쪽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그리고 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대 축제에 고대생쟁판 난동아니다. 06/12 00:18 47 line

이대 축제에서의 고대생들의 행동은 난동이 아니었다.

나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전파공학부 96학번 출신이다. 다른 사람의 ID를 사용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이대 축제에 가서 5월 29일 이대 축제 마지막날에 현장을 지켜보고 또 동참도 했다. 그동안 이대 축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무조건 고대생들이 잘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대 총학생회에서는 그 날 일을 이대 축제를 방해하기 위한 고대생들의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난동이며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축제 전에 이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번 축제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 1위가 고대생들의 쟁판이라고 한다. 올해 고대생들이 이대 축제에서 보인 행동은 과거에 비해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축제 이후 이대생들이 보인 표리부동한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대 총학생회의 농간이다. 이대 총학생회에서 축제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이대생들은 열기 왕성한 고대생들의

평판을 더 보고 싶어하고 축제 행사보다도 고대생의 평판을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으므로 매우 허탈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고대생들이 이대 축제에 와서 울 벌이지 못하도록 고대생들의 평판을 난동이니 성폭력이니 하며 매우 과장시켜서 표현하고 이대생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물론 남의 학교 축제 행사를 방해한 것은 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일종의 공연을 했을 뿐이다. 실제로 기차놀이를 할 때 우리는 돌려 있는 길을 지나갔을 뿐이고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먼저 발길질하며 폭력을 행사한 쪽은 바로 이대생들이었다. 힘이 약한 여자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평판을 벌인 것을 성폭력으로 규정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이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학교에 비해 애교심이 강하고 그런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대생들이 우리의 평판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간 것이다. 또 몇 년 전부터 이대 축제에서 고대생들이 평판을 부려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때 이대가 우리들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였음은 능히 생각할 수 있다. 평판의 장소가 여자학교였기에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던지 우리는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있을 MBC 청소년 음악제를 위해 만든 무대를 부신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무대가 튼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간 것이지 그 무대를 망가뜨리려고 올라간 것은 아니다. 몇 명이 올라가니 무너져버리는 위험한 무대를 운동장에 마련해 놓은 MBC측도 잘못했다고만은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팔이 부러진 차명진학우에게도 너무나 미안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몰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그녀만 팔을 다쳤는가? 자기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한 잘못은 없는가?

그리고 차명진학우가 먼저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대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비롯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것은 자유이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고 학교나 법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든지 그 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대 총학생회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792]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06/12 02:36 141 line

96학번이라고 하셨나요?

96학번.... 1학년이라는 이야기이군요. 당연히 그러리란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이나 3학년짜리가 아래와 같은글을 써 놓았다면 아이 미친 새끼야 느네 동생이 팔 부러져 와 보라하고 한 마디 하고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학과 88학번 졸업생입니다. 도대체... 님의 글을 보고는 기가 막히다 못해 자판을 두들기는 팔이 저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님의 글은 우선 실제 눈 앞에 벌어졌고, TV다 신문이다 도배가 되었던 사실 자체를 갈아뭇개고 있습니다. 그냥 큰길에서 논 것 뿐이라거나, 심지어 여학생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등등 여차여차해서 그건 결코 '난동'이 아니었다고요....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연대생들이 해마다 5월 5일이 오면 학관앞을 점거하고 기차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줄다리기를 줄을 불태우고, 술먹고 "아카리카"를 외치면서 지나가는 또는 항의하는 여학생에게 욕을 퍼붓고, 이를 몰아내려는 학우들에게 완강히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한다면, 님은 그걸 가만 놔 두시겠는지요? 그게 난동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같은 아주 위카신고 뛰쳐나가서 발아 죽여 놓겠습니다. 님의 생각은 다르신지요?

고대생(?)의 애교심이 유별난 것은 자랑이지 흠이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애교심을 발현하는 방법과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것은 그 자랑거리를 가장 낯뜨거운 치부로 둔갑을 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미 고대생들은 이대에서 그를 멋지게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그걸 왜 부정하십니까?

적어도 지난 5월 이대 대동제에서 고대의 애교심이란 하나의 광기에 다름아닌 것으로 치부되고 전락되고 짓밟힌 것을, 아니 우리 고대생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어찌 그리도 땃땃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체 이런 절면피 현상들이 언제부터 안양에서 발생하고 있었는지....

누군가 또 위에서 '일부'란 말을 붙이지 않고 왜 그냥 '고대생'이라고 팔뚝을 걸어붙이시겠지요. 하지만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제때 이 땅에 건너와서 술한 조선인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 잔학한 일본인들은 사실상 소수였습니다. 하다못해 지금도 정신대는 일종의 상거래 행위였다고 강변하는 극우파들도 역시 일본 내에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때 소수 일본인을 굳이 가려내어 그들에게만 비난을 퍼부을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행동이 가능하게 했던, 또 그런 망언이 나올 수 있었던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를 알기 때문이며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본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 얘기만 나오면 "일본놈들 나쁜놈들" 하며 이를 박박 가실 정의로운 고대생 여러분들이실텐데 어찌 그다지도 소수와 다수 구분에 그리도 집착하시며 나아가 우리 고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비판에 '소수의 문제야'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분리하라는 요구를 하며 그 분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뒤집기를 시도하시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난동자가 소수인지는 모르나 그 난동을 교사한 것은 과연 소수였을까요? 바로 1792와 같은 분들의 사고는 바로 그 난동의 교사 혐의를 쓰기에 충분합니다.

이들테면 이런 식이지요. "이대에서 벌어지는 고대생의 쟁판은 실상 애교심이 유달리 가득한 고대생들이 대학의 축제에서 향유 있을 수 있는 정음과 자긍심의 발산에 불과하다. 고대의 집단주의 정신 어디 가느냐? 우리는 고연전과 4.18 그리고 이대축제에서의 집단행동을 통해 고대생으로서의 일체감을 획득해 간다. 이대생들도 우리를 기다린다(암소사) 문제는 '일부' 이대생들의 쓸데없는 반발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정말 갈데까지 가는 자기변호를 펴게 됩니다. 이대생 차명진씨 팔 부러진 것... 지가 먼저 까뭇다가 부러진 것 아니냐..라는 식이라든가, 몇 명 올라가서 박살날 무대를 왜 만들어 놓았냐든가..아무리 신입생이라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율했습니다. 방귀편농이 성을 내고 도둑놈이 훔쳐갈 물건 없다고 살림 좀 잘살라고 훈계한다고 하더니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습니까?

이대의 언론 플레이에 분개하시는 분 보십시오.

언론 플레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대가, 아르바이트 장패를 고용해서 쟁판을 치게 하고 그걸 고대생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생판 있지도 않은 일을 날조하여 신문 방송사에 넘기고 있습니까? 항상 있던 일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우발적인 일을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까발리고 있습니까? 그날 이대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 고대생이었습니다. 물론 그에 편승한 타대생도 있었겠지만 그 판을 개판으로 만들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분명 전통에 빛나는 고대생이었습니다. 줄다리기 줄에 불을 붙이고 무대를 박살내고 여학생의 팔을 부러뜨린 것은 분명 수능시험 점수 낮으면 명함도 못 내밀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런 고대에 적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90년 이후 악질화하여 오로지 쟁판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를 통해 자기말말이를 치는 난동이 수년째 계속되어 왔으며 요 몇년간 비슷한 류의 논쟁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대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대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는 언론 플레이에 말렸다"고 하는 해괴한 면피논리와 동일합니다. 즉 지은죄는 그닥 크지 않은데 그 죄값을 엄청나게 치르고 있다며 억울해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언론을 파리에 비유합니다. 어디건 냄새가 나는 곳은 살살이 찾아갑니다. 동을 싸 뭉개 놓고, 파리가 괴는 것을 보고는 "거 참 파리 안보게 잘 치워 두지..."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깁니다. 또 갑자기 언젠가 "우리가 한 것은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논리가 기세가 등등했었습니다. 성폭력으로 몰지마라.. 남자대 여자로 가지마라... 는 훈계도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성폭력이란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이 현저히 약한 여자 대학에서, 황소라도 때려죽일 듯한 청년들이 술에 취한채 여자들을 밀어붙이고 만류를 무릅쓰고 자신들의 만족을 얻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그 행동을 제지하려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재발 알려 주십시오. 그 행동을 대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럼 ... 뭘니까 그게...

막걸리 찬가 얘기도 그렇습니다. 꼬투리를 잡아도 그럴듯하게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교정에서 막걸리찬가를 수천번은 불렀습니다. 또 강산의 뻘난 정기 어쩌고 하는 응원가 가사는 몰라도 막걸리 찬가는 무덤에 가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에서 막걸리 찬가의 공식적 폐지를 주장했다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틀린 얘깁니다. 막걸리 찬가란 공식적인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응원가에다가 몇몇 선배들이 작당을 해서 고대의 맛을 유머러스하게 불어넣은 구전가요 아닙니까?

이대에서 문제삼는 것은 다름아닌 후령구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고대생들은 선배들에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주땅은 우리것 태평양도 왕보 못한다."고 외치던 막걸리 찬가의 뒤 후령구에 왜 "이대생도 숙대생도우리 것이고" "수녀님도 우리것 비구니도 우리것이고" "지구여자 우리것 외계여자 우리것"이고 하는 졸렬한 가사가 붙었다는 것을 알입니다. 이대가 문제삼는 것도 바로 이 후령구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주장하십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 못부르게 하고 선배들도 그 구절이 나오면 서둘러 제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이대에서 알리가 있습니까? 과연 5월의 무법자들이 과연 이대에서 만주 땅하고 태평양만 우리것이라고 외치고 말았을까요? 이대생들이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행사장 한 가운데를 장악하면서 "이대생도 우리것 숙대생도 우리것"을 외쳐대는 그 고락서니를 본 이대생이 거기에 분노하지 않아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막걸리 찬가 운운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면 과거 광주 청문회때의 우화 한토막이 떠오릅니다. 월간중앙이라는 잡지에서 광주 항쟁 화보라는 제목을 달고 내놓은 사진 중에 공비를 사살하고 찍은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당원들은 일제히 광주 자료에 대해 전면적인 불신을 제기하며 "모든 것이 가짜다"는 식으로 몰고가려고 기를 썼습니다. 참으로 낮두껍게도 말입니다.

"씨 지들이 웬데 남의 학교 교가에 가까운 노래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원인제공이 누구인지는제발 좀 알고 화를 냅시다. "그래도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단언합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고대 쟁판에 동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남의 학교 대동제 고사를 지내기도 전에 돼지머리를 들고 뿔 분이며, "시발년들아 좀 놀겠는데 왜 지랄이야?" (본인이 들은이야기임) 라고 떠들수 있는 분이며, 팔을 부러뜨려 놓고도 지가 먼저까불다가 뽀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며 행패를 만류하는 단대생을 집단으로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얼빠진 자식들아!! 전두환때 선배다!! 06/12 01:54 133 line

칼! 정신나간 놈들 학교에 먹칠을 하고싶어 안달이 났는가?

먼저 저는 80년 중반을 안암교정에서 보낸 사람이옵시다. (이후 경어 생략)우선 나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대를 싫어한다. 물론 전부가 아니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잘난 체를 한다. 잘난 건덕지도 없는 것들이. 그래서 나는 고대여자들이 좋다. 고대 여자들은 진정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고 겸손과 아성을 알고 있다. 매너면에서 형편이 없다. 그들은 신촌이 무슨 특권인 듯이 한다. 아성의 고대에 대해서는 특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상아릇한 미소를 보인다. 88년인가 뉴스위크지에 이대생들 사진이 나왔다. 기사내용은 한국의 과소비 풍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었다. 곧바로 이대생들의 항의가 있었다. 이대와 관계없는 기사에 이대생들을 동원했으니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건 일부를 과장한 거라했다. 그럼 외국인 기자는 심심해서 이대사진을 보냈는가? 이미 이대가 그런 선입관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건 소위 이화인이 만들어낸 이대의 얼굴이 아니었던가? 그럼 고대생의 이대 난동건은 어떤가. 그건 고대생의 일부라고 말했더니 이대는 남성 우월주의가 빛은 성폭력이라 했다. 자신의 학교 일이면 그 치부는 일부이고 남의 학교이면 그건 전체란 말인가? 나의 선량한 후배들은 가슴이 아프다. 이대는 공정한 눈을 갖기를 바란다.

사실 나는 그런 난동의 주역들을 두둔하고 싶지않다. 오히려 고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이제는 사라진 줄싸따를 내리고 싶다. 못난 것들... 정신나간 녀석들이다. 어디 고대의 전통에 이대에 가서 발광을 하는 것이 있었던가? 나는 84년 입학이래로 그게 전통이라는 말은 올해 처음 들었다. 나는 나의 수많은 선배님들 중 어떤 분에게도 그런 추잡한 전통을 이어 받은 적도 후배들에게 물려 준적도 없다. 왜 우리가 이대 축제에 500여명이나 가야하는가? 고대에게 이대가 그렇게 중요한 학교인가? 못난 송아

지 엉덩이에 붙었다고 좋은 전통은 버리고 어디서 허접쓰레기 같은 것을 전통이라고 내세우는 후배들을 나는 나의 후배라 부르고 싶지 않다. 새내기보다 고학번들이 더 잘못이다. 우리 앞은 새내기들을 그런 쓰레기장터에 가서 재미운운 하다니 한심하기 이쁠데 없다. 이대 총장님께서 수능시험 3위가 이대 운운 하셨는데 신경쓰지마라. 그런 말도 안되는 ... 상대를 마라. 난동의 주동자를 성질갑아서는 다 팔라버리고 싶다.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데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정학까지 받게 되었나. 그렇게 인생의 정음의 힘을 쏟을 곳이 없었나? 암울한 80년대가 지나니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4.18의 정신과 6월 항쟁의 연와투쟁에 빛나는 고대의 건설적 저항기질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일로 전화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인생을 허황게 여기는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구 말대로 쌍쌍파티하는 육사어나 가서 그렇게 해라. 우리학교 행사에는 그렇게 없는 줄 아냐? 내가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어렵지만 학내에서 그런 축제는 어떤 고대인들과 함께 벌어지고 있을 거다. 왜 자신의 물보는 보지못하는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 골리앗은 다윗을 이겨도 뉴스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작은 애들만 골라싸우는 비겁자로 찍힌다. 모두들 비겁자들이다. 악한 사람들을 괴롭혔으니, 법대로 해도 특수폭행죄이다. 도덕적으로도 비겁자들이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고대전통의 과시였으면 당사자들은 실명을 밝히고 주장하라. 내 가서 알아주마. 총화이고 신문사고 정신차려라. 그걸 고대의 전통 운운하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마라. 고발해버린다. 우린 이대와 관계하는 전통을 가진 적이 없다. 몇개안되는 여대 중에서 그래도 쳐주니까 제일 잘난 줄안다만 그런 착각을 심어주는 것은 이런 고대생들의 난동이다. 그 여자애들이 프라이드를 느끼는 근거가 뭐냐? 여대중에 입학점수가 제일 높아서? 웃기는 소리. 82년 부터 이대는 외대보다 못한 점수를 이어왔다. 입학제도가 바뀐뒤는 나도 모르겠지만, 근거가 이거라면 외대 친구들은 잘난 척 할 줄 몰라서 그런가? 이거 아니면 이대가 잘난 척할 근거가 없다. 있다면 정신나간 녀석들이 이대에 500명이나 가는 정성을 보여준 것일게다.

총학생회는 단호하라. 난동자들을 두둔하거나 비호하지마라. 오히려 사감에 얹메이지 말고 포청천 처럼 단호하라. 싸운 것은 과감히 잘라버려라. 왜 사전에 미리미리 단속하지않고 잘난 체하는 애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가? 그리고 뒤통을 치면서 뽀뽀하고 있는가?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병폐가 우리 안팎의 총화의 모습인가? 난동자들은 가서 사죄하라.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다면 일반 사회에서도 폭행을 가한 자들은 피해자에게 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규칙이다. 고대 여성들도 분노하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철없는 녀석들이 악한 여성에게 가한 만행에 더더욱 분노하라. 같은 강의실에서 이런 비겁한 난동자 농평이들과 잠시라도 동료로 있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나도 얼굴을 못들고 다닐 정도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고대 병원의 선생님이 의료사고를 일으켜서 부끄러웠고 MBC강성구사장에 관한 사건에 고대의 연로하신 분들이 연루되어 무끄러웠다. 이젠 젊은 학생들 까지도 이런다니 정말 부끄럽다. 교수, 선배, 후배까지 먹칠을 하는구나.

이건 나의 감정적 토로이다. 하지만 내가 이대를 싫어하는 것과 고대생의 난동은 무관하다. 위의 글은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차이에서 나온 말이지만 옳고 그름 혹은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않은 것으로 말한다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한다. 나는 의대의 그 학생이 정학으로 처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화인들의 아량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난동자들은 백배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화인들이 굳이 고발을 하겠다면 할 수 없다. 어쩌랴. 하지만 난동은 잘못된 일이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

다.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보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 적극적으로 하라. 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여지가 있다면 의대생에게 내려지는 정학의 의미를 안다면 가급적 피하고 싶다. 총학생회는 성폭력 운운의 토론회에 참가하지마라. 총학생회도 모든 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이 건 보면 단당하게 단학교의 명예를 해치고 인사사고를 낸 문제이지 성폭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총학생회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호포단을 이대로 보낸다는 유치한 발상은 그만 두어라. 그저 이대는 이대대로 나두어라. 나는 우리 고대생들이 다음 해에도 이런 난동을 물리력으로 막지않으면 또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고대는 말로도 된다. 각 단위 학생회는 토론회하라. 간부들은 형식을 가리지 말고 사석에서든 아니면 총회를 열든 가지말자고 결의하라. - 집단적으로 가지말자고. 친구가 있어서 가는 것가지는 말할 수 없지않는가? 그리고 난동부리지 않으면 되지.- 총학생회는 토론회를 지휘하라. 총화하라. 각급의 학내매체들은 여론을 다듬고 총화의 내용을 보도하라. 총학생회는 모금운동 따위는 하

지마라. 고대전체가 방관한 죄도 있지만 그건 사회로 받은 지탄과 사유로 간접적인 책임을 가진 모든 고대생들이 충분히 정신적인 대가를 치루었다고 생각한다. 보상은 난동자들 개인적인 일이다. 정학은 받지않더라도 경제적인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이 정당하다. 이걸 정학을 받은 그 친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대에 가서 난동과 관련된 일을 한 자들은 모두 자수하라. 그게 고대정신이다. 이대에 가서 난동을 피우는 것이 고대정신이 아니다. 스스로의 양심과 명예를 회복하라. 하지않으면 각급의 학생회는 고대의 명예회복차원에서 발본색원하라.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 직접적인 정신적인 책임을 지도록하게하라. 각급학생회주도로 자기과에 난동자들의 연서로 된 사회대자보를 게시하라. 고대인들은 이 문제에 관해 누구와의 대화에도 잘못을 과감히 시인하라. 학교당국도 교육지도를 잘못된 문제로 이화인들이 원한다면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관대했으면 한다. 먼저 고대인들 스스로가 문제를 시정하고 위와 같이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면 이대가 그걸 수긍한다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해결방법에 인내를 가졌으면 한다.

문제는 빨리 수습할 수록 좋다. 제발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리고 학교의 위신추락 전국 5위 형편없네 등등 비난이 많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나의 후배들은 이번 일을 멋지게 극복할 것이며 수많은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정의로움의 대명사로의 전통은 쉽게 무너지지않는다. 내 때에도 이대를 가긴 갔다. 하지만 그건 이대 총학의 요청이 있었었다. -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사적으로 이대 간부들이 요청했었다. - 당시는 퇴폐적인 축제를 모든 학교들이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내용과 형식을 교체하는 중이었다. 사학의 명문 고대와 연대는 바꾸어 냈다. 학도호국단을 총학생회로 바꾸어 낸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지만 이대는 연고양교와 다른 몇몇이 이런 작업을 마치어 갈때에도 그렇지 못했다. 하여 힘을 보태달라는 부탁이 있었었다. 영산줄다리기 줄을 같이 꼬아주며 학생회의 앞날과 정보를 교환하며 일부 물지각한 이화인들이 자기 학교 행사를 위해 타학교 학생들이 와서 줄을 꼬는 것도 아랑곳않고 그들의 화장발을 자랑하며 파트너의 팔을 잡고 히히덕 거리며 열을 지나갈 때, 대운동장에서 화려한 옷매무시를 자랑하 파트너와 밀애를 나눌 때 붉은 노을에 노동으로 붉게 상기된 얼굴들과 함께 영산줄이 그 안으로 고대뿐 아닌 다른 학교 남학생들도 같이 이화인들과 메고 들어 갔다. 그리고 이대도 대동제를 치를 수 있는 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 뿐이다. 나는 그때 여학교라는 신기함은 있었지만 이대생을 싫어 하는 것은 여전했다. 줄을 꼬며 이야기를 해도 나는 이화인들이 내 체질에 맞지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그들에게 무슨 실은 내색도 인신발언도 하지않았다. 싫으면 그뿐 아닌가? 그런데 오지말라는 데 어거지로 가서 고대전통, 고대정신 운운하는 그런 추태는 과연 어디서 연유한단 말인가? 아예 없는 듯이 행동해라. 이 얼빠진 나의 후배들아!!!

최근의 게시물들을 보며

06/23 23:21 116 line

편의상 평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내에서는 '제적설'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떠도는 모양이다. 아직 이 '설'이 정설로 굳혀진 것도 아니고, 나같이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선 사실 여부도 수소문해 볼 수 없는 처지이지만 제적이란 절대 '단호한' 조처가 아닌 '무모한' 조처임을 분명히 말해 둘 수 있다.

제적조치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름에 앞서서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은 과연 이 칼을 받아야 할 '죄인'들의 죄값이 그에 상당할 정도로 무거운 것인가이겠지만 그에 대한 판결은 어차피 교육 당국의 몫이니 접어들기로 하자. 황궁하옵게도 고대 총장님이 두 번씩이나 이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시게 만들고, 학교양신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시킨 그 망나니들 따위의 '동북금품'은 받지 않아도 학교 운영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지도 모른다. 또 머리가 나쁘고 수업에 불성실한 나머지 경고 3번을 받으면 에누리없이 학생증을 회수하는 판에 하라는 공부는 않고 남의 학교 가서 개판을 만들고 온 놈들에게 본패를 보이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제적조치라는 것은 학생 신분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정상적 교육의 포기선언이다. 이대 대동제에서 벌어지는 고대생의 행판이 1.2년의 연륜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강산

도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술한 고대생들이 술대없는 우울감과 그 속에 숨은 열등감 (이 말에 울컥하지 말기 바란다.)에 휘말려 벌여 왔던 그 무치한 집단행각에 대해 학교당국이 취한 행동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총장님이 나서기에는 지나치게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면 하도못해 학생처장의 자제 호소라도 있었던가. 자제를 호소하는 고대 여학생들의 대자보가 남학생들의 손에 찢겨 나가고, 해마다 난동을 부리는 고대생들의 소식이 올해와 같이 대문밖은 아니더라도 신문의 가십란에는 어김없이 등장하였는데 과연 그때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교육의 담당자로서 그 책임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파교육자들의 실수를 그런 식으로 그래 놓고 10년을 버든 이대의 포한이 터뜨려지고 매스컴의 초점이 고대로 물려들자 부랴부랴 '제적'의 칼을 배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10년간의 직무 유기를 칼 한 번 휘두르는 것으로 불식시키려는 가당찮은 시도에 다름아니다. 또 목 길게 빼고 그 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가. 지난 10년간 '살아왔던 그 전통(?)'을 아무거리낌없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왔던 이들이 아닌가. 그 전통 아님악습을 만든 것이 고대의 선배학생들이었다면 그 전통에 '거리낌'이 없게 만들었던 데에 과연 학교 당국은 전혀 그 책임의 소재가 없을까?

로 단죄하는 처사를 당장 그만둘 것도... 과거 봉건왕조 시대에 학정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을때 조정에서는 가장 못되게 굴던 그 고을의 아전 나부랑이들을 잡아 목을 따서는 효수시켜 백성들의 노기를 달래려 들었다. 그 죄가 아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되레 아전으로 하여금 그런 죽을 죄를 짓게 한 것이 조정이었지만 그 죄를 뒤집어쓴 것은 아전 뿐이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우리는 이를 '미봉책'이라 규정한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미봉책일수록 과격하고 무모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금없이 튀어나온 이 제적론은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이대 책임론'이다. '이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발상이다. 이 발상은 "그냥 해 왔던 일인데 이번에는 재수없게 옹코로 걸렸다"는 생각을 근거에 깔고 있는 것으로 "미안하다 미안해. 이제 그만 좀 해라"는 짜증섞인 사과를 통해 진정을 호소하다가 "제적시킨다더라"는 소문이 돌자 이런 사태를 몰고 온 데 대한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이대측의 무리한 행동 탓으로 돌리면서 갑자기 여성해방론자들의 선부론 옹모나 이대 총학생회의 음험한 전술에 빗대를 올리는 도식으로 연결된다.

이대에서 "제적"을 국한시켜 처벌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징계'와 '처벌'을 포함시킨 것은 맞다. 즉 공은 고대 측으로 넘어온 것이고 그 공을 리시브한 것은 고려대학교 당국이었으며 제적 운운은 이 리시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리시브 미스를 탓하는 것 대신 '지나치게 강한 서브'를 넣은 상대방을 걸고 넘어지는 주장이 있다.

이대측의 반발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역지사지를 권할 수밖에 없다. 과연 고대에서 그런 일들이 10년간 지속되어 왔다면 대체 어떻게 했겠느냐...는 질문이다. 모르긴 해도 10년은 고사하고 어쩌다 그런 행판을 연대생이건 서출대생이건 육사생도들이건 벌였다면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실려나가는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을 것이고 민족 고대 학우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진압하지 않았을까?

10년간 고대생들은 그런 물리적인 진압 능력이 없는 여자대학을 상대로 제멋대로의 행판을 쳐 왔던 것이다. 96년 이대 총학생회가 유달리 드센 여자로 구성되어서, 또는 여성해방투사들로만 채워진 집단이어서 올해와 같은 대응을 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생각의 수정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적어도 이번 사태는 이대가 10년간 겪어왔던 고대생의 집단 행각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다. 무슨 권수권 서명발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교수사회에서 단 며칠 동안 1백명이 넘는 이대교수들이 다투어 자신의 이름을 서명록에 적었다. 또 아무리 여성해방투사들로 이루어진 이대 총학생회라 할 지라도 (한 발 양보하여) 누군가가 주장한바와 같이 '자신들의 대동제에서 고대생의 행판을 가장 기대하는' 이대생들이 대다수를 이룬 학교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토록 강경하게 내세울 수는 없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교해주었다. "언제부터 고대생이 쥐새끼가 되었나? 호랑이도 궁지에 몰리면 고개를 숙일 줄 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잘못은 저질러진 것이고 물은 옆질러진 것이다. 저지른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쏟은 물은 닦아 내고 다시는 옆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꾸짖는 사람에게 "아 거 되게 딱딱거리네. 미안해 미안하다고!"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그건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일본인들이 내지르는 소리이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인가?"라고 질문은 바로 말끝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민들에게 던지는 일본인들의 그것과 똑같으며 "과연 우리가 잘못했는가?"라는 반문은 "과연 식민지 시대가 조선에게 피해만 끼쳤는가?"라는 적반하장과 같으며 "이대생들도 우리들의 쟁판을 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라는 항변은 "조선인들 스스로가 일본에 합병되기를 원했다."는 말도안되는 강변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도 있다.

자존심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이 세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혼자만 지키는 자존심같이 처량하고 딱한 것은 없다. 나는 내 모교와 내 후배들이 그런 딱한 꼴이 되는 것은 솔직히 보기에 민망하다. 이제는 수습이 필요한 때다. 어떠한 일이건 그 수습에는 사태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합리적인 제재, 그리고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적어도 민족고대의 구성원들이라면 이 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믿으며 8만이라고도 하고 10만이라고도 하는 고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추이를 지켜 볼 것이다. 그럴때 민족고대의 이름은 그 무게와 광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늘도둑과 소도둑

06/26 01:24 51 line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도둑과 소도둑을 똑같이 볼 수는 없지요. 바늘도둑은 군밤 한 대면 사면될 수도 있지만, 소도둑은 옛날같으면 곤장맞아 죽을 죄였으니까요.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건, 도둑질을 하려는 발상이 하잘것없는 장난에서 연유한 것이건, 탐욕에서 기인한 절도행각이건 유사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각설하고.. 제가 일본과 조선 (또는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굳이 이번 이대 사태에 굳이 대입시킨 것은 이대의 고통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쨌건 이번 사태에서의 가해자 노릇을 하고 있는 고대생 여러분들의 일부에서 나오는 반발과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이 일본인의 것과 닮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한 겁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이 이대생들 정도의 고통이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십니까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항의에 "미안하다.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보상과책임자 처벌 등등 민감한 요구가 들어오자 "이제 그만 좀 해라."고 되받아치면서 "이대생도 그걸 즐겼다."라고 억지까지 부리는 모습에서 저는 요즘 정신대 할머니들의 시위를 대하는 일본인들의 뻔드렁니를 연상했던 것입니다.

어느 이대 교수가 이대사태를 "5.18"에 비견했다고 해서 광주시민들에게 송구해 하시는군요. 사실 이대 교수의 비유는 과한 감이 없지않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과장입니다. 또 전 그런 비유를 해 봅니다.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폅니다. "왜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다 잠잠했는데 왜 광주 것들만 총들고 섰느냐?" 참으로 열받는 헛소리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와 비슷한 발상을 이 게시판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명진 학우의 부상은 참 안됐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만 다쳤을까요? 혹시 제 몸을 지키는데 소홀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을까....."

제 얘기는 일본놈만큼 고대생이 사악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위와 같은 말을 한 후배 고대생이 전두환만큼 나쁜 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발상이 비슷하게 보여지고 그만큼 위험한 발상임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고대생을 전두환에 비기는 비약을 하지 말라."라고 치고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암튼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은 하루에 수십명씩의 남자를 상대했던 그 육체적 치욕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나라의 여자로 태어나 강한 나라의 남자들 손에 짓이겨지면서 느낀 그 무한함 무력감. 그 수컷들의 광란을 눈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치욕. 그래놓고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니 지켜주지 못한 남자들의 세상에서 침묵의 고통을 강요받아 왔던 모든 고통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고통을 이대생의 그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늘도둑과 소도둑의 차이가 아닐지요.

여성 해방의 추태(?)

06/23 12:25 23 line

저도 나름대로는 페미니스트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성해방..저는 이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여성의 권위를 신장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죠
저는 나름대로 그런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성 해방(?) 아니..여성의 권위 신장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녀 평등을 원하면서..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도리어 남성보다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전 그런 태도가 싫습니다 물론 의욕이 넘치면 그럴 수도 있을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에 다다르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뒤돌아보고 그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 권위 신장 운동에서 앞장을 서시는.. (저는 앞장선다고 보지 않음..단지 사람들이 그럴뿐..)
이대생들의 이번 우리 학교 난동 사건 대한 반응을 보며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보며 느낀 바
를 간략하게 적은 것입니다

처벌에 대하여...

07/01 10:26 193 line

편의상 평어로 쓰겠습니다.

요즘 이 게시판의 가장 큰 화두는 '처벌'문제이지 싶다.

처벌. 뭔가 스산한 분위기가 배어 있는 이 단어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
게 털어놓았다. 그 글들을 읽으면서 머릿 속을 스쳐가는 이른바 '만감' 중에서 가장 두텁이 떠오르는 것
은 나 자신도 처벌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아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이대 사태는 고대생
(일부건 전체건)들의 책임이고 거기에는 마땅한 책임의 추궁이 따라야 한다" 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생
각이고 앞으로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처벌이 어떤 정도,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
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제적만은 안된다"라는 영성한 마지노선 만을 얘기했을 뿐, 별다른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처벌 문제 논의 과정에서 부분하게 제기되는 처벌불가론들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희생양론
이다. 이대 사태는 거의 10년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그 악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번 쟁판의 주역
1학년들에게 그 죄값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에 다름아니요 그것은 곧 이른바 미봉책 의
대표적 경우이며 더군다나 그 희생양이 될 사람들이 앞길에 9만리같은 신입생들일진대 그 처벌의 파장
이 어찌 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 닭잡는데 어찌 소잡는 칼을 쓰라? 는 주장
이다. 아직 철모르는 신입생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그다지도 무정하게 징계의 칼날을 휘두름은 정도
가 아니요. 관용과 용서의 정신으로 그들에게 선도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
가서 (이대의 논리대로라면)강간범은 거시기를 자르고 도둑놈은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까지 말하며 처벌의 불가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주역과 엑스트라론 이다. 이대 사태의 주역이 대체
누구이고 멋모르고 주위에 있다가 분노한 이대생들이 마구잡이로 찍은 비디오에 얼굴이 박힌 사람들은
또 누구냐는 것이다. 그 둘간의 분리를 어떻게 하며 그 분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주장의 배경이자 근거이다. 투박하고 거칠기는 하나 이상이 내가 파악한 처벌 불가론의 골자들이다.
이외에도 많은 주장과 근거들이 있긴 하겠으나 일단 이 정도 얘기를 먼저 걸어 두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밝혀 보고자 한다.

주역과 엑스트라론 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자. 93년이었던가 94년이었던가, 이대 대동제에서의 고대생
난동이 비디오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를 온 사람은 영화판에 있던 고대 선배로 이대대동제 촬영
의뢰를 받고 왔다가 그 광란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를 지켜본 경험으로 미루어 솔직히 주동자와 엑스
트라 를 가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크림슨과 엘리제가 던지는 그 커다란 원의 중심에서 응원
단 흥내를 내며 다음 응원가를 연달아 선창하던 그 사람, 이번 사태에서 빨간 고무장갑 끼고 호루라기
불던 그 사람을 주동자라고 부르는데 무엇이 어색하단 말인가? 이대에서 비디오에 나온 사람 모두 처
벌을 요구한다면 그건 한여름 복날 잡아먹어 달라고 호소하는 개소리라고 치부하면 되지만 영연히 주동
자를 가려내어 처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증거로 비디오테이프까지 코앞에 갖다대 놓고 있는데
누가 주역인지 엑스트라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은 아무래도 논가리고 아웅이
아닐지. 이대에서 증거라며 내미는 비디오테이프를 한 번 보았으면 한다. 그 비디오에서 과연 주동자
와 엑스타라가 영커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책임이 애매한 상태라면 비디오를 통한 주동자 가려내

기란 사실상 억지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정하여 클로즈업하고 있거나 그 사람이 그 클로즈업에 어울리는 주역배우의 연기를 해 내고 있다거나 할간장갑에 호각을 갖추고 이대 원정의 사령관 행세를 하고 있었다면, 그건 주동자다 그 사정은 고대쪽에서 판단할 문제 아닐까? 주동자와 엑스트라를 가려내서 그 명단을 들고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쪽의 직무유기다. 비디오 채종 결과 주역과 조연의 역할이 애매하여 처벌이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몰라도, 너희들 주동자하고 엑스트라하고 어떻게 구별할래? 라고 옥박지르는 것은 번지수가 다르다.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 닭잡는데 어찌 소잡는 칼을 쓰랴. 물론 법도, 학칙도 처벌보다는 계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일제시대 형무소라고 불렀던 빵 이 교도소로 이름이 바뀐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곧 형을 받고 그 형에 해당하는 벌을 치르게 하는 곳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닦우치게 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곳이란 뜻이며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형벌 이라는 의미이다. 형벌에도 벌금 금고 징역 사형이 있고 학칙상에 따른 제제도 계도가 있고 근신조처가 있고 정학이 있고 퇴학 제적이 그 상위에 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처벌이 소잡는 칼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 그리도 사람의 앞길을 막고 싶어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적절한 처벌이 그 사람에게 악이 되었으면 되었지 독이 되지는 않으리라 반론한다. 도대체 왜 몇몇 사람들이 처벌 하면 호적에 빨간 줄 그이는 것만 연상하고 구만리같은 앞길을 막는 만행이며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것만 상상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이대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오늘의 사태를 불러 왔다. 즉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된 것이다. 그래도 가래를 들 생각을 하지 않고 호미 정도를 들고 이제 호미라도 들었으니 됐지? 대강 넘어가자 라고 한다면 뚝 날 가래로도 못막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 주지의 사실이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나 처벌이란 동시에 구제불능자에게 내리는 마지막 처분도 아니다. 적어도 남의 학교에서 그런 행판을 치면서 학교 망신을 시킬대로 시킨 사람들, 사람까지 다치게 한 사람들에게 처벌 소리 꺼내지도 마라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나는 솔직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들에 대한 구제 운동을 벌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이 있을 연후에야 가능한 수순이다. 과연 그 사과가 이루어졌는가? 그 반성이 철저하게 고대 내에서 이루어졌는가? 처벌은 그 받는자를 망치기 위함이 아니요, 그 잘못된 중대함을 깨우치게 하고자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처벌을 내리고 받는 것이 마치 고대의 항복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나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당연히 반대할 일이지만 그 처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무조건 제적! 을 외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다. 왜? 나는 솔직히 처벌 반대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지? 하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처벌할 일은 아니라 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번째 희생양론. 10년의 희생양이 된다는 주장에는 분명 타당성이 있다. 사실 동정이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년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들 역시 11년의 희생양이 아닐까? 그들 역시 철이 없고 본분이 모자라 남의 학교를 개관으로 만들어버릴지언정 신입생이고 뭘 모르는 애들인데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미봉책 이 아닐까? 10년의 죄과를 그들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옳다. 하지만 어느 누가 그 10년의 죄과를 그들에게만 지우라고 했는가? 이미 그 죄값은 누가 알렀다시피 고대 전체가 되받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만약 96학번들에게 처벌이 가해진다고 할때 너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책임이다 라며 지난 10년간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 그리고 처벌받은 후배들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것이 선배들의 죄값을 치르는 형식일 것이다. 누가 우리 새끼를.... 이라며 팔뚝을 걸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겨울지 모르나 남이 보기에 아름답지는 못하다. 또 희생양론 은 실상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호화 외유나 관료사회의 비리 등등의 문제에 여론의 세찬 비판이 가해질때 그 당사자들은 언제나 관례를 방패로 삼는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왔다 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항의가 드세지고 처벌의 칼날이 다가오면 그들은 왜 우리만.... 우리는 희생양이다. 라며 억울함을 표시한다. 또 국회의원이면 관료사회건 처벌의 칼날이 피해갈 수 없다 싶을 때에는 과감하게 희생양의 목을 쳐 버린다. 그것은 희생양의 목을 친 것의 의미보다는 도마뱀의 꼬리를 자른다는 의미가 더 크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희생양들의 설득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과연 우리가 처벌을 한다고 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같은 작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 희생양이 애처럽다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으면 된다. 처벌이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김을 공출히 여긴다면 그로 하여금 그 처벌을 받게 했던 행동이 남의 마음에도 그만큼 상처를 주었음을 인지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희생양의 대표적인 일화로 음참마속의 고사를 든다. 삼국시절 촉나라 장수 마속은 그 재능을 믿고 지나치게 나대는 일이 잦았지만 제갈량은 그를 무척 아꼈다. 촉나라 황제 유비는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새파랗게 젊은 마속의 이름을 거명하며 제갈량에게 그를 조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제갈량은 마속을 아낀 나머지 계속 중히 썼고 마침내 운명을 건 위나라 원정에서 마속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제갈량은 마속을 끌어냈다.

너는 왜 내 명을 거역하고 삼군을 위기에 빠뜨렸느냐?

스스로 제 몸을 묶고 죄를 자청한 마속이 답한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하지만 저에 대한 정을 생각하시어 제 가족들의 뒤를 부탁드립니다

너와 나는 형제와 같은 사이다. 더 말하지 말라

이 대화 후 마속의 목은 떨어졌다. 제갈량은 마속과 대화하면서, 끌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고 마속의 목이 들어오자, 통곡을 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물었다.

이리도 슬퍼하실 것을 왜 죽이셨습니까? 마속의 죽음만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선제께서 임종하실때에 마속의 가벼움을 경계하라 하셨는데 그를 미처 살피지 못하였음이 한스러워서 그런 것이다.

귀국 후 승상 제갈량은 황제에게 표를 올린다. 제 과오가 크니 제 직급을 감해 주십시오.

황제는 제갈량의 고집에 결국 승상보다 여러 품계 낮은 우장군의 직위를 줄 수 밖에 없었다.

제갈량은 마속의 실수를 단호하게 처벌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슬픔을 자를 줄 알았고 그 슬픔 못지않게 자신의 과오를 뇌우칠 줄 알았으며 그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았던 것이다.

제갈량이 승패는 병가지 상사다 라고 말하며 마속의 실수를 용서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과연 그 자비가 진정한 자비로 다른 촉군들의 눈에 비쳐졌을까?

그래 그럼 후배들의 목을 치자는 얘기나 지금? 이라며 사람 들게 만드는 말꼬리잡기가 또 있을까봐 한마디 한다면 나는 후배들의 목을 치자는 얘기가 아니다. 후배의 잘못을 꾸짖고 응징을 가하되 그 후배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고, 또 그런 후배를 만들었던 자신의 과오에 뼈저린 반성을 하자는 것이다.

직장 생활하면서 통신상에 글쓰기를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긴 글 쓰고 앉은 것을 보면 나도 참 한심한 사람이다. 졸업한 학교, 까마득한 후배들이 저지른 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허허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사실 머릿 속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기엔 나는 너무나 내 모교를 사랑한다. 단순 무식 과격했고 혼티가 줄줄 흘렀지만 나의 동료들이 정겨웠다. 단순하지만 정직할 줄 알았고 무식하지만 지혜로웠으며 과격했지만 필요할때 과격할 줄 알았던 사람들을 지금도 절절히 기억한다. 또 지금 학교를 채우고 있는 2만이 넘는 학생들도 역시 그러하리라 생각하고 지난 고연전때 보너스 받은 돈을 이름도 성도 모르는 '빨간 모자'들에게 던져 주면서 한마음 가득채우는 기쁨도 누렸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이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릇된 관념을 가진 선후배 동기들에게 나의 의견을 들려주고, 나의 오류를 지적받기 위해서, 또 그런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교이며 나의 세계관을 형성시켜 준 민족고대의 이름이 시공창에서 하시라도 빨리 건져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다.

분명히 하자. 우리의 명예를 도둑질해 간 것은 이대도 매스컴도 아니다.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의 후배들이고 선배들이다. 그 절도당한 명예를 되찾아오는 것 역시 이대도 매스컴도 아닌 우리들이다.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이 글이 나의 마지막 글이 되길 바라며....

어느 선배가 보내온 글

들어가기

아무도 이 사건이 공적인 공간에서 논의되고, 또한 정식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당당한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화인들의 피해자로서의 당당함은 사람들을 하여금 이 문제를 단순한 젊은이들의 패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남성 지배문화의 성희롱, 성폭력이자 패권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아주 중요한 승리이며, 이 승리는 일차적으로 이화인들의 개인 승리입니다.

물론 그대인들의 대동제 난동사건을 성희롱, 성폭력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 캠퍼스 생활을 통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며 무지몽매하게 올라오는 많은 적대적인 글들(그중에 특히 그대여성들의 글 몇개는 저로 하여금 하루내내 분통터진 속을 술로 달래며 애써볼 정도로 강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질적인 가해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에 관한 논의가 나오면서 우리를 압박하게 하는 동정론 (피해당사자가 착한 시늉을 하는 것 만큼 가해자적인 발상은 없는 것입니다.) 등으로 인해 과연 싸울 만한 일이었는지, 혹은 이제까지 그대까지 가면서 활동해온 것이 참으로 쓸데 없는 일인 아닌지 같은 빠져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모든 활동들이 이미 승리이며 절거운 반란이었음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반란에 저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준 총학생회와 여성위원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 여제야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는가?

많은 사람들, 특히 이화인들의 적극적인 저항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첫번째 대응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있어왔던 일인데 왜 이제야 들고 일어나느냐. 감사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랜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임에 너무도 보편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외식은 너무도 남성적이어서 (배운 교육의 태반이 그런데 그게 어찌겠습니까?) 그동안 이 문제는 총학생회차원으로 싸우기에 너무 여자애적이거나 대학대 대학의 싸움이어서는 안된다는 강박증, 그리고 괜한 보편성. 그대인들의 난동을 무과했거나, 방치했거나, 혹은 물리력으로 인해 패배했기에 우리도 잘한 건 없다. 온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많은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대인들의 난동이 공론화되기 위해서는 단 한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난동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 다시말해 젊은날의 개척이거나, 산업조외에 저돌어 있는 신선 문화를 부수고야 말겠다는 영웅주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굳이 이대를 비롯한 여자대학을 선택한 이후, 여성들의 문화공간을 점거하고 남성문화의 단결력을 과시해야만 했던 이후, 특히 이 난동이 남성들만의 고요모임에서 (동우회나 씨름) 주관되는지, 그리고 왜 대다수의 피해당사자인 이화인들은 그저 그것을 지켜 보거나 딱시 단 콧바람을 단지는 것으로 밖에는 저항하지 못했는지를 고민하고 논쟁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일차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사적인 것을 모두의 것으로, 지나쳐던 것들을 중심으로 옮겨오는 역할을 하였고, 이제 어떤 이들과 그저그런

난들은 성희롱.성폭력이라는 정치적인 언어로 그 개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고대인들의 난들은 성희롱.성폭력으로 규정함을 용인하지 못한 사람은 (왜 성희롱이고 성폭력인지를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여성위원회와 총학생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 이 필요한 것이고, 여성성에 대한 불행의 자각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슬프긴 하지만 스스로가 현실속에서 불행해지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의 그 짙은 싸움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저항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늦기는 했지만, 그것이 저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깊은 반성이 이화인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방치해 두었던지, 자신의 존엄함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은 현재의 이화인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며,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저항으로 그 부끄러움은 자랑스러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매애에 호소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한 것, 공적인 것, 아닌 여성성의 연대를 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정치적이다.

컴퓨터 통신에 올라온 보스적인 남성들의 의견에 일일이 반박을 할 생각은 초호도 없습니다. 언어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은 종종 생기는 일이고, 그들과 대부분은 자신의 비교학적인 사고, 오지함, 무지함, 그리고 그것에 기인하는 용역의 혼란함과 이해모함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심지어 적박하장오로 오라에게 오치고 무지하다고 비난을 하고 있으니, 더이상 어떠한 반박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양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고 싶더라는 분이 계시다면 한가지 방법을 적고 싶습니다. 먼저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용어를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첨가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폭력: 자신이 생각하는 성폭력은 무엇인지. 이런겁니다. 그외에 용어설명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성, 여성해방, 팽판, 짙짙하다, 논외하다등. 제 예측이건데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기술할 것입니다. 성폭력: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성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이미 결심하였고, 신중이 검토하여 모든 전략과 전술을 고명한후, 난 성폭력을 하려 간다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각인시켜 연장으로 가서 그것을 실행한것. 여성성: 여자의 성? 여성해방: 생각만 해도 불쾌하다. 시대착오적이다. 도대체 왜 그러나, 우리 아버지도 엄마한데 품작 못하고 산다. 팽판: 남의 학교에서 자기행사를 하는것. 그러므로 고대가 이대에서 노래보르는 거나, 이대가 고대왕서 집회하는 거나 다 팽판이다. 짙짙하다: 여자애들의 대부분의 소리. 논외하다: 조로 남성들이 자조하는 것으로... 뭐 이런단가 대동소이할겁니다. 만약 여러분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싶다면 이렇게 용어설명을 쓰게 한후 그것보러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논외는 커녕 대화도 불가능할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친절이 대화하기에 속이 좁아서 그런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몇몇 여성들의 글에 대해 지금부터 제 생각을 적고자 합니다. 전 그런 상상을 하며 고대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고대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다. 고대 총학생회를 점거하고, 총장실도 점거하고, 건물 밖에는 이런 플래카드를 걸면 좋을텐데 '이화인만 못참느냐, 오라도 못참겠다' 그리고 고대의 여성들은 고대내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폭력문화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화인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과 함께 세상과 싸울것이라는 성명서를 읽는 겁니다. 아!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여성성의 연대는 아니 오라식으로 말해 자매애란 대학교 지역, 인증, 심지어 가끔은 계급까지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고대집회에 사실은 고대인 모두가 아니라 고대 여성들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들과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에서 그러셔도요. 소귀에 경읽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이다라고. 진심으로 저는 그대의 여성들이 함께 분노할 것 이라고 확신했고, 그동안 남성문화가 우리를 분쇄시키는 오해들, 그대여성들은 존스럽고 남자같아, 이대애들은 야하고 머 리가 없어같은 그런 우리의 자매애를 막아오던 많은 거짓들이 일순간에 해소될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세상은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더군요. 여성들에게 가장 끔찍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걸 칭찬이라고 보죠. '아, 넌 일하는게 여자같지 않구나, 꼭 남자같아서 참 네가 편해, 넌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구나' 이런 말 말입니다. 권력의 쪼개기를 조금 나누어줘서 그걸 가지고 모든 불행의 자명함을 있게 하려는 그런 수작말입니다. 그러나 그말은 참 달콤 한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대와서 가르쳐주고 든다며 비난했던 그대여성에게, 여성들끼리 모이면 뭐가 되나, 왜 자 고 그대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냐고 한 그 여성에게, 그리고 이대에 와서 폭력에 동참한 그대여성고, 이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며 저항의 몸짓을 오치고 공격하게 보는 이화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매애만 그런 겁니다. 단지 사 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으로 인해 불행함을 맛보는 모든 여성의 이름으로 감히 당당하게 불행에 얼굴을 맞대고 외치는 거. 그리하여 세상 모든 여성이 나의 가장 큰 친구인것. 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매애만 세상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당당한 연대의 행위입니다.

이화대동제는 여성주의적인가?

자, 이제 이화에게로 눈을 제대로 돌려봅시다. 이제 논쟁의 핵심을 보아야 할 시제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해봅시 다. 이화의 대동제는 여성주의적인가? 우리는 그대생의 난동을 남성문화의 여성주의 문화에 대한 침탈이라고 규정하였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해봅시다. 이화의 문화는 여성주의적인가? 이화의 문화는 여성의 고요한 저항의 문 화로 일관되어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엔 오랜 조처되는 것이 많습니다. 학문이전에 자신의 삶에 관한 고찰인 여성학을 그리파본하다고 쓴 한 이화인의 글을 읽을때, 여성주의 문화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일관되지 못한 대동제의 그 다양한 연상에 대해, 이제 고민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 입니다. 진심으로 내년 이화의 대동제는 이화의 이름 이전 에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 고요의 저항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대동제이기를 갈망합니다. 학교의 모든 장소에 여성의 이름으로 행위하고 이야기하는 모임들이 펼쳐져 있고, 세상 모든 여성의 불행함이 한곳에 모여 이제 이것을 고요한 해 방된 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보여지는 그런 대동제이기를 희망합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스스로 여성주의자임을 확인하고 그를 위해 고민하고 논쟁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고민들이 이번 그대 난동사건의 핵심은 아닐까요?

민족고대생들의 집단난동의 사건규정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규정한다

이 개념의 핵심은 '물리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위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 있다.

이화광장예의 침입

이화 대동제는 '이화'라는 공간에 이대생을 비롯한 대학사회, 그리고 사회전체로 열린 대동, 즉 하나됨의 자리이다. 이런 공간인 이화광장에 한 집단이 자신의 대열을 만들어 그 곳을 장악하고, 자신의 응원가를 부르는 것은 그 공간에 대한 자신의 소유를 선언하는 것이다. 모든 이와 함께하는 이화광장이 순식간에 '고대'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대동의 장에 있었던 비고대인 모두를 소외시키는 행위이며, 대동의 장을 주체적으로 준비한 이화와 그들이 대동의 장에서 함께하고자 한 내용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적우월의식의 발로

이런 행위는 고대의 '엘리트 의식', 그리고 '전통적 집단주의' 혹은 '유아기적 행동'등으로도 분석할 수 있으나, 그 핵심은 이 난동이 유독 '여대'에서만 관습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 그런 행위가 여대에서는 수용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난동이 매년 진행되면서 '이대가 공식적으로 고대생의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도 나오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는 '물리력의 우위'의 인식이다. 난동패는 난동 중 계속적으로 '이대 지킴이 나와서 댄버라',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는 구호를 외쳤는데, 실제로 물리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였다. 그 자리에 있었던 타대생의 경우에도 '재네들 우리학교(공학)에서 저랬으면 맞아 죽었지'라고 하면서도 그 행위를 두고보기만 한 것은 대동의 장이라고는 하나 이대 대동제는 일차적으로 이대생에게 책임이 주어진 공간이고 그들은 공식적인 '물리력의 약자'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성정치적인 권력의 우위를 점한자로서의 주류의식이다. 즉, 그들의 생각이 사회적 주류라는 의식으로 '재미로 하는 놀이다.'라고 규정하며, 피해를 당한 자의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난동전에 '땃거리 한판'이라는 토론장과 자보작업을 통해 이것은 이화대동제에 대한 침탈행위라고 규정했다. 여성주류의 성격을 갖는 이화대동제에서의 고대생의 남성적, 군사문화적 집단행위는 대동제를 준비하는 이화인에게 또, 그에 참여하는 비고대인에게 정신적 폭력으로 규정지어진다는 주장을 전달하였으나, 난동패는 그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심지어는 '땃거리 한판'에서조차 '난 난동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고대생도 있었다.

또한 난동과정에서 그들은 '여자들끼리 뭐하냐'는 이대대동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발언과 난동을 제지하는 이대생에게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냐'는 안하무인식의 발언을 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의 당당함은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의 표출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응원가'를 부르며 자신의 고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대에서 응원가를 부르는

것은 이대에 대한 고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마치 '이 여자는 내꺼야'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매년 이화광장에서 불리워지는 막걸리찬가의 뒷부분은 '이대생도 우리 것, 숙대생도 양보 못한다.'는 가사이다. 이는 이대를 동등한 대학사회의 일원으로 보기보다는 성적 대상자의 집합으로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고대자체를 남성집단으로 선언하는 행위이다.(그렇기 때문에 난동패에 섞였던 여성을 '여성정체성'을 지닌 여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 문제는 일단의 고대생의 성폭력 행위라 규정지어지므로 그에 대한 정확한 고대의 인정이 필요하다. 여전히 그 사건을 '단순한 치기에 의한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는 것 혹은 '고대 전통의 왜곡된 이해' 따위의 내부문제로의 소급은 문제의 본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남성주류의 편협한 시각이다.(이 시각대로라면 이대대동계에서 벌어진 집단난동의 사과를 받는 대상은 피해자인 이대가 아닌 고대가 되어버린다.)

행위자체에 있어서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다. 피해자는 단순히 행사진행에 방해를 받고 물리적 피해를 당한 것 외에 성적지위에 의한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이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바뀌지 않을 불변의 상황인 것이다.